

# 가습기살균제 피해 인정범위 확대

### 특별법 9월 시행 ... 피해질환 특정 않고 입증책임 기업에 광주·전남 피해자와 유족들 손배소에 도움 될 듯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 인정 범위가 확대되고, 피해자의 입증 책임이 완화된다.

환경부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하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개정안을 24일 공포하고 6개월 후부터 시행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가습기 살균제로 장기간 아픔을 겪고 있는 피해자에게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 이로써 광주·전남 지역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유족들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등을 골자로 한다.

우선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질환을 특정하지 않고,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돼 발생하거나 악화된 피해를 포괄적으로 인정한다.

현행 피해구제법에서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 질환을 폐 질환·천식·태아 피해·아동 성인 간질성 폐 질환·기관지 확장증·폐렴 등으로 특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피해자 범위 제한을 두지 않아, 정부의 피해구제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피해자로 인정되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책임이 강화된다.

흡연·연령·식습관·직업 요인·가족력 등으로 천식·폐렴·기관지확장증·간질성폐질환 등을 앓고 있었던 피해자도 가습기살균제 노출 이후 증상이 악화했다는 사실을 소송에서 증명하면 피해를 인정받게 된다.

또 피해자가 역학적 상관관계 등 일정 부분을 증명하면 기업이 반증하지 못하는 이상 인과관계를 추정하게 된다.

즉 피해자가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된 후 질환이 발생·악화되고, 노출과 질환 발생 간에 역학적 상관관계가 입증되면 기업이 피해자의 노출 시기 및 정도, 생활습관, 가족력 등을 파악해 가습기살균제 피해가 아니라는 것을 반증해야 한다.

다만, 피해자가 역학적 상관관계를 증명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환경당국은 조사 연구 및 전문가 심의를 거쳐 역학적 상

관관계가 확인된 질환을 올해 안에 고시할 예정이다. 또 비염, 후두염, 기관지염 등 적용 가능 질환을 확대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또 정부 재정으로 지원하는 '구제급여'와 가습기 살균제 생산 기업의 부담금·정부 출연금을 더한 '특별 구제 계정'을 통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특별 구제 계정을 받은 피해자들은 개정안 시행과 함께 모두 구제급여 수급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장해급여를 신설해 건강피해 치료한 후 신체 등에 장애가 생긴 피해자에게 지원할 예정이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가습기 살균제로 고통을 겪는 분들이 개정안을 통해 구제받고, 손해배상소송에서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가습기살균제 피해범위 확대 ▲소송에서의 입증책임 완화 ▲피해자 지원체계 단일화 ▲정부의 지원범위 확대

## 3D 지도·드론 활용 무등산 산불 예방

### 무등산국립공원동부사무소 취약지역 분석·사각지대 감시

무등산국립공원동부사무소가 3D 공원관리 지도와 드론을 활용해 산불 예방에 나선다.

국립공원공단 산하 무등산국립공원동부사무소(소장 주홍준)는 "불철 대형 산불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오는 5월 15일까지 '대형 산불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과학적 공원관리 기술을 활용한 불철 산불 예방 활동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무등산국립공원동부사무소는 지난해 자체 구축한 3D 공원관리 지도인 스마트

파크(Smart Park)를 활용, 산불 취약지역의 발생빈도·지형·고도·경사도 등을 분석해 산불예방에 적용키로 했다.

또 산불감시용 드론을 활용해 접근이 어려운 산불 사각지대를 감시하고, 산불 감시카메라 모니터링을 통해 취약시간대 순찰을 강화하기로 했다.

무등산국립공원동부사무소탐방시설과장은 "간조하고 강풍이 잦은 불철은 작은 불씨 하나가 대형 산불로 번질 수 있는 계절"이라며 "농촌지역 논밭두렁 태우기와 쓰레기 소각 행위 등은 절대하지 않도록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한부모 노동자' 육아휴직급여 인상

### 통상임금 200만원에 육아휴직 1년이면 300만원 더 받아

배우자 없이 혼자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 노동자'의 육아휴직급여가 오는 31일부터 인상된다.

고용노동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3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 시행령은 한부모 노동자가 육아휴직 첫 3개월 동안 지급받는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80%에서 100%로 인상했다. 이 기간 상한액도 월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올렸다.

맞벌이 노동자가 쓸 수 있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의 인센티브를 한부모 노동자에게도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는 한 자녀에 대해 두 번째로 육아휴직을 쓰는 사람(통상 남성)의 첫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올려 지급하는 제도다.

시행령 개정으로 한부모 노동자의 육아휴직 4번째 달에서 6번째 달까지 3개월 동안 육아휴직급여도 통상임금의 50%에서

80%로 오른다. 상한액도 월 12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된다.

이에 따라 통상임금이 월 200만원인 한부모 노동자가 1년의 육아휴직을 낸 경우 기존 시행령으로는 1천350만원을 받지만, 개정 시행령을 적용하면 1천650만원을 받게 된다. 노동부는 설명했다.

개정 시행령은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한 노동자가 6개월이 안 돼 일을 그만둘 경우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한다면 '육아휴직급여 사후 지급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육아휴직급여 사후 지급금은 육아휴직 급여의 25%를 업무에 복귀한 노동자가 6개월 계속 근무하면 일시불로 지급하는 것으로, 육아휴직을 쓴 노동자의 업무 복

귀와 계속 근무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다.

기존 시행령은 노동자가 복직 이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지 않으면 이유를 불문하고 사후 지급금을 주지 않아 비자발적 퇴사를 한 노동자에게는 부당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개정 시행령은 육아휴직을 부여한 사업주에게 주는 '육아휴직 등 부여 지원금'과 '대체 인력 지원금' 지급 방식도 개선했다.

기존 시행령은 노동자의 복직 이후 사업주가 일정 기간 고용을 유지해야 일시불로 지급했지만, 개정 시행령은 지원금의 50%는 노동자의 육아휴직 기간 사업주에게 지급하도록 했다.

# 한국 금융의 힘 신협 815 해방 대출

3.1%~8.15% 금리로 대한민국 서민을 고리사채로부터 지킵니다

각종 불법, 탈법, 고금리로 빌린 무서운 고리채, 그로 인해 고통받는 서민과 소상공인을 신협이 해방시켜 드립니다. 순수 국내자본 신협이, 대한민국 서민을 평생 든든히 지킵니다

신협의 7대 포용금융 프로젝트

광주문화신협 ☎ 1644-7990

평생 어부바 신협

## 한국 금융의 힘 신협 815 해방 대출

대한민국 민족자본 신협이 다시 한 번 시작합니다. 1960년대의 신협이 그러했듯, 오늘의 신협 역시 대한민국 서민을 고리사채로부터 지켜가겠습니다. 한국 금융의 힘, 신협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신협 815 해방 대출은**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고금리 대출을 받고 있거나 신규로 중금리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에게 지원하는 신협의 대표적인 중금리 신용대출 상품입니다.

**대상자** 신협 내부심사기준(신용등급 등)을 충족하는 고객 중 ①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고금리의 신용대출을 3개월 이상 받고 있는 고객 또는 ② 신규로 중금리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

**대출한도** 최대 1,000만원 이내  
**대출금리** 연 3.1%~8.15% 이내 (고정금리)

**신협의 고리사채 추방운동**  
민족자본 신협은 1960년대부터, 서민들의 생활을 옥죄어 온 고리사채의 악순환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을 펼쳐왔습니다

**대출기간** 최대 5년 (기연연정 포함)  
**상환방식** 만기일상환 또는 매월 원금(일부) 균등분할상환 또는 원리균등분할상환  
※ 중도상환수수료 : 면제

**필요서류** 재직증명서, 소득증빙서류, 기타 필요 서류

문흥지점 266-4150

양산지점 573-4150

운암지점 528-4150

운암산지점 513-4150

매곡지점 572-4150

첨단지점 576-4150

## "믿고 안심할 환경 관리체계 구축"

### 류연기 신임 영산강유역환경청장 수질오염사고 사전 예방 미세먼지 저감 노력 장목습지 원활하게 추진



"광주·전남 지역민이 믿고 안심할 수 있는 환경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류연기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은 24일 광주일보와의 취입 인터뷰에서 올해의 중점 추진 사업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류 청장은 우선 국민 건강을 크게 위협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모든 사회 구성원의 힘을 모으고, 사업·수송·농업·생활 등 부문별 미세먼지 감축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또 화학사고, 수질오염사고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사고 발생시 지역민 피해와 환경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유관기관 공조 및 대응 체계를 수시로 점검하는 등 사회안전망 강화에도 매진할 것을 다짐했다.

류 청장은 또 물관리위원회와 구체적인 성과를 하나씩 도출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물관리위원회로 인해 오랜 염원이던 수질과 수량 통합 관리가 가능해졌고, 물관리위원회 출범으로 물관리 정책 추진을 위한 강력한 실행력이 확보되었다. 관계기관 등이 수집한 유역관리 기초자료를 유기적으로 통합하고, 이를 상호 자유롭게 공유·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강력한 유역 거버넌스 기능과 그간 축적·연구된 과학적인 기초자료를 최대한 활용해 영산강이 처한 고질적인 수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마리를 찾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류 청장은 인간과 자연, 개발과 보전

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국토관리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최근 보존이 결정된 황룡강 장목습지의 국가보호습지 지정 절차가 계획대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힘쓰고, 생태관광 등 자연자원을 현명하게 이용해 환경 행정 서비스 만족도를 높여겠다고 밝혔다.

류 청장은 공직생활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에 대해 지난해 화학물질안전원장 재임시절, 국민들에게 화학물질 안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유관기관 협업체계를 완성한 것이라고 답했다. 어렵고 전문적인 화학물질 안전정책을 국민이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했고, 고객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소통을 확대하고 수요자를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했다고 자평했다.

류 청장은 마지막으로 항상 균형 잡힌 사고와 관계기관,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등과의 유연한 협력관계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 실행에 반영하는 열린 마음가짐으로 다가가겠다고 말했다.

류 청장은 전남대 사대부교 출신으로 연세대에서 학사와 석사과정을 마쳤다. 대통령 국정홍보비서관실 행정관, 화학물질안전원 원장을 역임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멸종위기 1급 '황새' 신안 압해도에서 월동

멸종위기야생동물 1급이자 천연기념물인 황새가 최근 신안 압해도를 찾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신안군은 "국제적인 보호종 황새 1마리가 지난해 11월 신안 압해도를 찾아 이달 초까지 머물다 최근 북쪽으로 이동했다"고 24일 밝혔다.

압해도에서 발견된 황새는 황새복원센터에서 인공증식으로 지난해 5월에 태어



난 '평화'로 같은 해 8월 방사됐다. 이후 지난해 9월 23일 센터에서 240km 떨어진 고흡동 방조제에 도착해 11월 초까지 머물다 떠난 것으로 파악됐는데 지난 11월 13일 압해도에서 관찰되기 시작했다. 평화에는 이동경로와 생태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가락지가 부착돼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신안=이상선 기자 sllee@